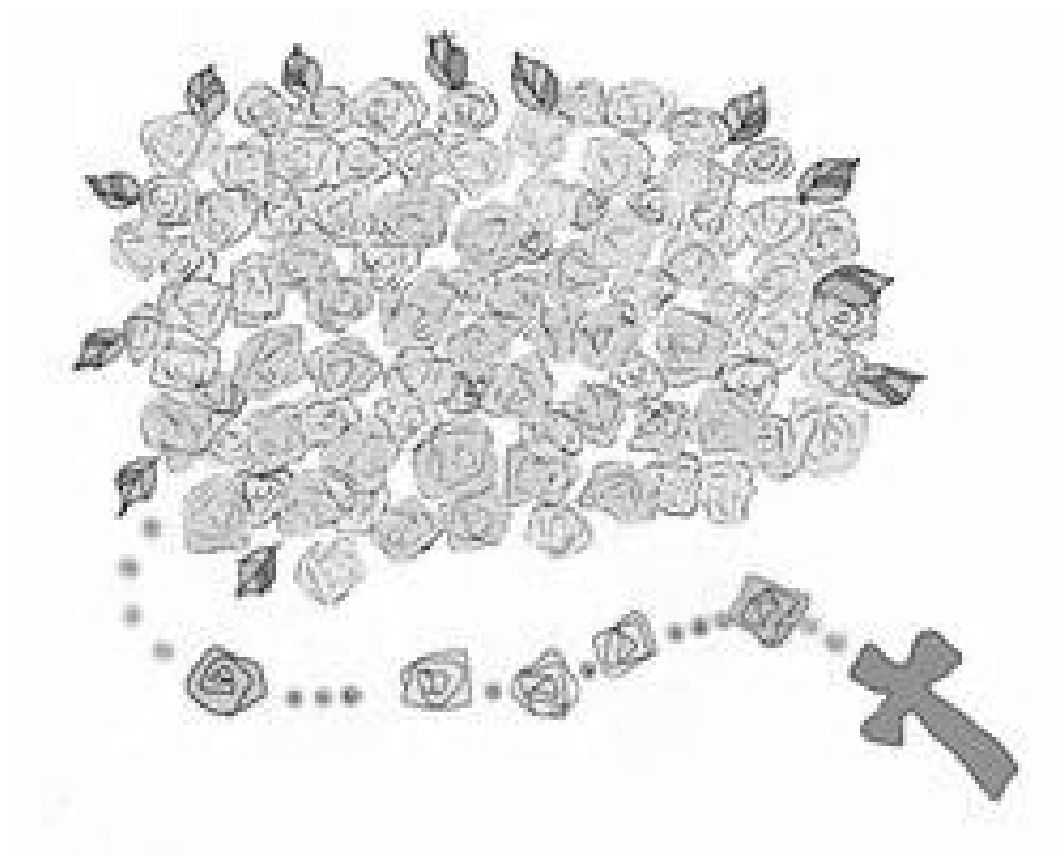


만남

2012 10
165호



목주 기도 성월 · 전교의 달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www.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함부르크 성당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며-----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버림과 따름-----	5
글 모 음	존경하는 최태식(필립보)신부님께-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8 10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1~4-----	11
공동체 소식	-----	23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25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26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7
미사안내	-----	28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새로운 복음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들에서 새로운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전교주일

전교 주일을 맞아 복음화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함부르크 성당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며

최종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에페 5,21-32에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의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여전히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주의적으로 큰소리치며 사는 세상에서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더욱 부추기는 말처럼 들려 듣기가 거북하다. 하지만 이 구절은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구절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랑은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당연히 자기의 고집을 죽이고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순종은 사랑의 다른 말이고 사랑 또한 순종의 다른 표현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제는 신자에게 신자는 사제에게 서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한다. 신자에게 순명하지 않고 신자가 자기에게 순종하기만을 강요하는 사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사목자라 할 수 없다. 사제는 사목방침을 내세워 신자들이 순종하며 따라 주기를 강요하기에 앞서 신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사목은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것이다. 과연 인류의 사목자인 그분은 인류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 죽기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은 인류가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인류에게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불신과 불순종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사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이다. 사랑의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 형성된다.

❖ 버림과 따름 (루카 14,28-33)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를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기쁨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속의 계산법>



<이태석 신부님 유품>



<무소유>



<버스 안의 수녀님들>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까지 읽어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누어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서랍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서랍 속을 통째로 휴지통에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선별해서 제자리에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욕심, 교만,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가득 쌓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법은 물질적 무소유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리고 정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가 될 것입니다.

◆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번 ‘사랑의 송가’를 부릅시다.

🌸 존경하는 최태식 (필립보)신부님께..

신부님.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앞이 막막할 뿐입니다.

한번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이 인연의 속도는 10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곳 함부르크 한인성당에서의 교우들과 만남의 인연도 아름다운 추억의 책장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성서 말씀에 이런 글 귀가 생각이 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사제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인간의 길은 자신을 내 세우는 것과.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국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을 함께하는 동료이고. 외롭고 허전할 땐 좋은 친구이고. 두서없이 서두를 땐 좋은 스승이였고. 의기가 필요할 땐 좋은 동지여서 좋았던 그런 추억들로 간직되길 빌어봅니다.

신부님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믿고 싶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망각이라는 좋은 처방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인연이 다했음이 아니고 다만 먼 훗날 좋은 추억으로 만남을 기다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그 동안 저의 레지오 규칙과 성모님의 정신을 알레꾸시오를 통하여 굳센 힘을 불어넣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알며 하루의 일을 마치고 뒤돌아 볼줄 아는 단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 가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성모님의 종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우리 레지오 단원 모두는 두손모아 성모님께 엎드려 기도 바칩니다.

존경하는 최태식 (필립보)신부님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함부르크 신자들을 사랑해 주신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는 슬픔을 달랠길 없지만 주님의 더 크신 일들을 위해 떠나시는 신부님을 주님안에서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기에 슬픔을 달래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시는 신부님을 웃음으로 보내드리며 또 사랑받은 만큼 기도와 신앙의 삶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아픈 마음과 슬픈 눈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 아픔과 눈물이 앞으로 신부님의 사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커다란 희생을 바치는 순간이라 여기며 우리 단원 모두는 기쁘게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최태식 (필립보)신부님

부디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던지 이곳 함부르크 한인성당 신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만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시고, 신부님 부디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09월 11일
레지오 마리아에서
허가밀라 드립니다.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어머니를 통해 밝혀지는 주님의 위대한 그림책이며,
하늘과 땅 사이에 흐름의 순환을 이어주는 신비에 가득 찬 끈이고,
과속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하늘이 내린 구원의 밭줄이다.

목주기도는

곤경과 위험 속에서 하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종의 줄이며,
어린 아이처럼 하느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이고,
지친 이들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떠받쳐 주는 지계이다.

목주기도는

나락에 던져진 구원의 밭줄이며,
열 두 사람 이상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허리띠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것을 입고 하늘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영대이다.

목주기도는

가난한 영혼과 큰 죄인을 영원한 천상 축복을 받은 자와 결부시켜 주는 끈이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인 헤아리기 어려운 미로 속으로
더듬어 나아갈 수 있는 끈이고,
피어오르는 장미 꽃다발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호소한다.

목주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사랑과 욕망, 나쁜 성격과 번뇌를 매어 두고 악령을 묶어 둘 수 있는 사슬이며,
우리에게서 속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매듭있는 노끈이고,
악의 철갑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소년 다윗이 자신의 신앙심을
재어넣은 돌팔매 투석기이다.

목주기도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마리아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는 끈이며,
피안을 향해 나아가는 나룻배 위에 있는 이들의 닻줄이고,
영원한 고향의 항구에서 우리가 정박하게 되는 닻의 밭줄이다.

교리1

사제, 수도자, 평신도 /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라는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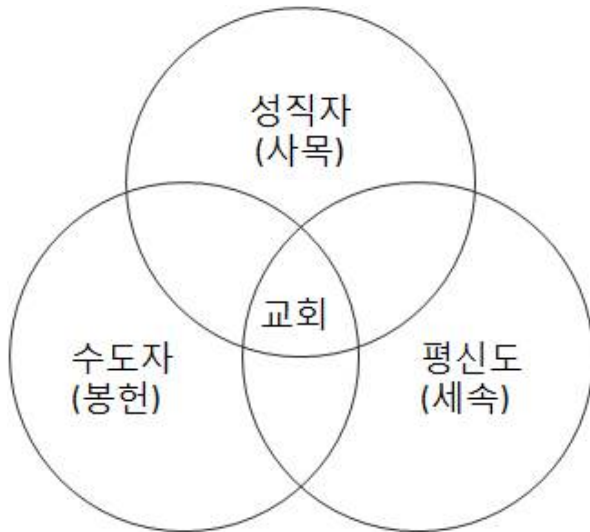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1코린12, 12-13)

천주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성령 안에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신분은 계급의 높고 낮음으로 자리매김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고유 특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말씀의 선포와 성무 집행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신앙인들을 성장시키고 하느님과 신자 사이에 다리가 되어 줍니다. 또 수도자는 청빈과 정결, 순명의 서원을 통해 세상의 가치들을 뛰어넘어 하느님 안에 사는 삶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와는 달리 세상 안에서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남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평신도의 직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본래 현세적 일에 봉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 그들은 세속에 살고 있다. 세속의 온갖 직무와 일,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조건들으로써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짜여진 것처럼 그 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헌장 31항)

교회헌장이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평신도들의 특성은 세상 한복판에 사는 것입니다. 자칫 성직자나 수도자처럼 그들을 따라 살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5,13이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삶입니다.



교리2

십계명

우리는 세례 때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옷을 살 때 그 옷에는 그 옷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인 상표가 달려 있습니다. 옷의 세탁 방법, 말리는 방법, 다림질하는 방법 등이 상표 안에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옷을 관리합니다. 상표에 적혀있는 것을 따를 때 그 옷은 옷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고 그 옷의 역할을 바르게 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상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준수하고 이행할 때 인간도 하느님의 의도에 맞게 쓰여질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이지요? (1-3계명은 하느님께 속한 것, 4-10계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

1. 한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살인하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10.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각 계명의 끝에 ‘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으니 꼭 인간을 구속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하느님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요,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잘 따르고 지킬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하느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첫째, 무엇보다 우선 깊은 애정의 봉사를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지은 이는 십계명을 열거한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마태 22,38)” 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하느님을 섬기려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자기 생명을 낳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기와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결혼에서 생명이 전수되는 성관계를 존중하는 것,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쓰이는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 인간관계의 진실을 존중하라는 것 등입니다.

셋째,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의향(지향)까지도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는 관련된다는 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행위를 하려는 지향만 가져도 심적 윤리 상태의 평가를 하시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 아래 통합시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요약하였고 산상설교(마태 5-7장)와 고별사(요한 14-17장)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예 새로운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심으로, 또한 율법의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 17).” 이 말씀은 구약의 계명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마태 22, 37-40). 그리스도께서는 윤리 생활의 뜻을 참으로 무한히 높이셨습니다. 높은 차원의 도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마태 5, 44-45).”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외적으로만 실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친척이나 친구나 친지들만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롭고 완전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통하여 당신의 기본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하느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불변의 기본 윤리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악을 행했을 때 비록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그는 양심의 명령 때문에 괴로워하며, 선을 행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느낌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양심 때문에 인간이 괴로울 수가 있다면 양심 때문에 진정으로 기쁨을 맛볼 수도 있으므로 양심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양심을 제외하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불가분의 것이므로 개인의 양심과 사회 명령과는 상통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형성된 훌륭한 법이 있을 때 올바른 양심을 지닌 사람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게 마련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율법을 역겨워하지 않으며, 율법을 거짓으로 지키는 자는 폭풍에 휘말린 배와 같다(집회 33,2).”

교리3

10계명 중 1계명

"한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3가지 삶의 원칙을 거부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은 쾌락이라는 근본적인 욕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보라는 유혹은 권력과 성취라는 근본적인 욕구에 따라, 또 악마 앞에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유혹은 삶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주어지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이었을까요?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마르 12,30)”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느님을 세상 모든 것 위에 높이 섬기고,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위에 모실 수 없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으며, 더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이치를 명백히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유형무형의 피조물을 하느님처럼 섬기기도 하고, 특히 운명이나 미래에 관해 하느님이 아닌 것들, 즉 관상이나 사주팔자, 토정비결 등에 의지하여 알려고 합니다. 또, 하느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들,

즉 성직자나 수도자, 성당이나 성물, 특히 성체를 모독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을 흠송하지 않거나 무교회주의, 불신론을 믿거나, 거짓 기적과 발현을 선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느님을 진정 흠송한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직접 잡신을 섬긴다든가 우상숭배 점술 등으로 하느님을 슬프게 해 드리지는 않는다 해도 쾌락이나 권력, 성공, 명예, 재물 등을 하느님보다 더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과학이나 이성이 인간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맹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쾌락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삶의 원칙으로 부채질하는 책이나 비디오나 가요가 참 많이 있어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나 학원,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오로지 명문대학 진학이라는 우상을 우리 인생의 목표인양 우러러 받들고 경쟁만을 부추기며 성적으로 인격의 가치를 재려고 하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로 말미암아 건강이나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런 데 지나치게 열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가족 이기주의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이 현대판 우상들의 특징이라면 그 자체로 보아 정당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으로 교묘히 합리적으로 제 본래의 모습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현대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제1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느님을 흠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송**이란 인간이 하느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행위로서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흠송은 **향주삼덕**이라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계시진리를 믿는 **신덕**, 하느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약속을 신뢰하며 영생을 믿고 바라는 **망덕**, 세상 만물 위에 하느님을 더 사랑하며 그 뜻을 따르는 **애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덕은 계시진리를 알려고 또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신앙고백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를 열심히 듣는 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호를 긋는 것도 신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망덕은 오직 자기 힘 만으로나 정반대로 자기 노력 없이 오직 하느님 힘만으로 구원되기를 바라는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며, 결코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잘못이 있더라도 자포자기하며 냉담해 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에 희망을 걸고 고백성사를 보는 것은 망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덕은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이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덕을 실천하는 것은 특히 하느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 흠송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생활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고 봉헌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통해 하느님을 흠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흠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제대로 흠송하려면 그릇된 하느님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아울러 고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하느님을 믿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신성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첫 계명은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그릇된 하느님 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하느님을 도덕적인 행동을 감시하는 하늘의 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지켜보신단다. 그러니까 항상 똑바로 행동해야 돼!” 사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숨은 마음까지 알아보시지만 그것은 잘못하기만 하면 벌주려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시편 139장에서는

“하느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소서. 나를 파헤쳐 보시고 내 근심 알아주소서.

죽음의 길 걷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하면 죄의식부터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식은 악행에 대한 책임에 깨어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용서라는 평화로 우리를 채우실 길을 찾으실 만큼 창조적이십니다. 미사를 드리고 고백성사를 보는 것은 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선의를 가지고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용기만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잘못을 참으십니다.

또, 하느님은 너무나 완벽해서 건드릴 수도 없고, 친밀할 수도 없고,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엄격한 청교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이외의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셨던 예수님은 딱딱한 새 구두가 아니라 발에 맞는 구두처럼 편안하게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편하게 만나셨기에, 죄인들은 예수님께 치유 받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율법을 맹신하던 그 시대의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한층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1계명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신명 6,5)” 는 하느님 사랑에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우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았고, 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앙애의 삼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삶의 원칙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상도 꿈꾸어 봅시다.

교리4

10계명 중 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은 한 인간을 다른 이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개별적 존재로 확정해 줍니다.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다른 아이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하며, 그 이름은 일생 동안 그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그의 고유한 개성과 생활태도와 힘을 가진 인물로서, 또한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가진 인물로서 우리 눈앞에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호칭을 불러준다는 것은 호의와 신뢰를 가져다줍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름과 호칭이 많이 있지요. 비안네, 아버지, 어머니, 여보 등등입니다.

여러분 자캐오의 이야기 알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여 예수께 다가가지 못했던 자캐오, 주님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심으로 용서와 회개의 삶으로 초대해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용서해주신다는, 당신만은 그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당신 이름, 야훼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이렇게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계명이 나왔을까요?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 현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 그 감사함을 저버리고 있음을 자각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보’라는 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태 7,21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어머니를 부를 수 있게,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는 자녀로서 인생의 반려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나를 성덕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빛낼 수 있게 하는 것. 나의 언행으로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 어머니임을 내 여보임을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느님을 좀 더 우리 가까이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성서에 잘 나오는데 구약에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께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맹세하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씌어졌을 당시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아닌 우리의 뜻에 의해서 너무 남용되어 씌어졌습니다. 이 같은 남용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이스라엘사람들은 너무 야훼의 이름을 업신여겼으며 또한 거짓 맹세를 하는 데에도 야훼의 이름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고 말할 수 있느냐?” (예레 7,9-10)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2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유독 이 계명을 ‘주님의 기도’에 삼입하셨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이름의 남용을 금한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거룩히 드러내시며)” 라는 뜻입니다. (마태 6,9)

또한 2계명은 거짓 맹세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거짓된 일에 내세우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신명 6,13)와 같이 진실성을 내세울 때에만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요 주님이신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진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의 말은 진리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맹세는 이러한 인간 진술과 하느님의 진리간의 관계를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는 인간의 거짓을 입증하려고 하느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가 되는 경우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하며 맹세하거나, 맹세를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거짓 맹세에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므로 중죄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는 2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러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3-34,37)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진실성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온전히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가 볼 때 하느님의 이름은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 14, 13) 사도행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도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고 하면서 굿는 십자성호로 자신의 하루와 활동과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바치며 당신의 은총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2 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항상 거룩하신 하느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않고 그분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 맹세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일과 생활을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함과 진실성을 드러내는데 써야 합니다. 당장 실천하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를 성호경을 그으면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의 모든 말과 생활과 행동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인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러한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점님 최영숙 서유진	18일	루 가 (St. Luke)	현김안 종태호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진호 김재영 이현준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명옥
	프 란 츠 (Franz)	김기연 리훈	23일	이 냐 시 오 (St. Ignatius)	윤용기
	프란치스카 (Francisca)	양현호 김인순 송유례	28일	시 몬 (St. Simon)	김동수 김대운 최화영 최순남 리간재
14일	부르카르도 (St. Burchard)	Gerding		시 모 네 (Simone)	허정은
15일	아빌라 데레사 (Avila St. Teresa)	임소아		라 파 엘 (St. Raphael)	김영복 김영호 이종하
16일	마르가리따 (St. Margaret)	강순행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0월 27일 ♣ 이 원일 (요 셉)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26일	9월 02일	9월 09일	9월 16일	9월 23일
계(€)	148,32	155,00	165,75	169,00	146,17

❖ 미사 전례 ❖

10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봉사
7일	김진호 프란치스코 최영숙 테레사	손대조 요셉 강순행 마르가리타	정명옥 살로메 이현묵 요셉	1구역
14일	김형웅 야고보 이정자 쟈마	강일남 로베르토 이미용 헬레나	김유석 그레고리오 이정수 토마스	2구역
21일	김점선 실비아 김경열 필립보	허길조 안드레아스 허명자 가밀라	남궁춘배 발드로메오 노정자 수산나	청년반
28일	이경규 안스카 유곡지 아그네스	이영원 베드로 김정옥 크리스티나	최장용 레오 손대조 요셉	3구역

❖ 자진헌납금 ❖

- 09 자진헌납금 납부자명단

(도밍고), 김형웅(야고보), 배성호, 이기열(요한)

손수희(모니카), 정정숙(안나벨), 허길조(안드레아스), 곽케빈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 제24차 유럽한인천주교회 성령쇄신 묵상회가 10월 10~13일간 진행됩니다.

-신청자 : 손수희(모니카), 한말조(마리아나)

-장소 : Kardinal Schulte Haus, Overrather str. 51-53, 51429 Bergisch Gladbach

☞ 독일 사목자 회의(켈른) 10월 15 ~ 19(금)일 진행됩니다.

☞ 유럽 울뜨레야 20주년 행사 <반딧불이>

- 10월 25(목) ~ 27일(토)일 까지

- 신청자 : 손수희(모니카), 한말조(마리아나), 김점선(실비아), Osnabrück에 김선자

☞ 아버지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10월 2일 화요일 19시 사제관 친교실에서 첫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19시 연습을 진행합니다.

- 지위자 : 허선애(임마누엘라)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회 장	정 명 옥 살 로 메	040/ 644 8623 0170 400 4754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김 진 호	040/3742 0006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기 도 회		매월 둘째 목요일 16시 30분	사제관친교실	회 장	정 명 옥 살 로 메	040/ 644 8623
을 뜨 레 아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간 사	허 길 조 안드레아스	040/ 555 3441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사제관친교실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셋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이 명 자 가 밀 라	040/ 555 3441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권 지 연 안드레아	040/ 651 1575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19시 00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강 인 경 카타리나	0176 6424 3886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040/ 890 3264
			총 무	남궁춘배 발토로메오		040/ 850 9768
		2구역	구역장	김 대 현 도 밍 고		040/ 540 4950
			총 무	허 채 열 크리스티안		040/ 570 973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040/ 601 1594
			총 무	강 순 행 마르가리타		040/ 297 543
		4구역	구역장	백 정 선 토 마 스		040/ 250 2589
			총 무	김 애 란 체칠리아		040/ 206 785

❖ 2012년 10월 ❖

날 짜		전례	행사
1	월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선교의 수호자)대축일	
2	화	수호전사 기념일	
3	수		
4	목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5	금		
6	토		지방 공동체 미사 17시 Bremen
7	일	연중 제27주일 / 군인 주일	사목 협의회 미사 후
8	월		Osnabrück
9	화		
10	수		
11	목		기도회 16시 30분 사제관 친교실
12	금		
13	토		지방 공동체 미사 17시 사제관 친교실
14	일	연중 제28주일	울트레아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15	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16	화		
17	수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18	목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레지오 월례회 평일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
19	금		
20	토		지방 공동체 미사 17시 Hannover
21	일	연중 제29주일 / 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2	월		
23	화		
24	수		
25	목		연령회 17시 사제관 친교실
26	금		
27	토		
28	일	연중 제30주일	
29	월		
30	화		
31	수		
비 고			

한신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15분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수·목요일 19시

장소 : 사제관, Danzigerstrasse 62,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